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 일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권사회 2004년도 수련회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 갈릴리 홀에서

금주 월요일(21일)과 화요일(22일) 양일에 걸쳐 2004년도 권사회 수련회가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월요일(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화요일(22일) 오후 3시 30분까지 계속된다. 이번 권사회 수련회는 주님께서 우리 권사회들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베푸시는 안식의 잔치이다. 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신인지! 단신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가까이 불러 쉬라 하시며 말씀 안에서 다스김 깊은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

그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며, 국내전도와 단기선교를 위해 적극 헌신하신 987분의 귀한 권사회들! 바로 이 분들의 영적인 삶과 재충전을 위해서 이 은혜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권사회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땀으로 휘장을 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온전히 깨달아, 그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아가는 권사회들과 온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일 시: 6월 21(월)~22(화)

장 소: 총현교회 갈릴리홀

주 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대 상: 시무·은퇴 권사

강 사: 이종대 목사, 윤운산 전도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금주 목요일 저녁, 1인방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실시

일 시: 6월 24(목) 오후 7:30~9:00

장 소: 갈릴리홀

주 관: 전도위원회

대 상: 전도위원회 전회원 및 참가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강의제목: 일대일전도(노광현 목사) / 관계전도(안원진 목사)

날고 요한과 갈삼(금요전회)-전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②

사람을 정복하는 일은 세 단계를 거쳐서 임하며 그 첫째는 이미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세상에 나타났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한 정복과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죄와 사탄을 멸망시키는 일은 어떠한가? 그 일은 아직도 미래에 속한 일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이미 임한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는 법을 정리해 보자.

“자녀들은 할육에 함께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할육에 함께 속함은 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어 하미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 주라 하시기라”(히 2:14-15). 여기에서 “자녀들”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로 할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자” 말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어 하미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곧, 그러고 그대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마귀를 얻어 하미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얻어 하미라”는 희랍어로 “힘을 못 쓰게 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로 하여금 힘을 못 쓰도록 하시기라 것이다.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도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먼저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첫 단계이다. 또 사탄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무자비하게 단죄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사탄에 대한 정복처럼 사탄에 대한 정복도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하셨다”는 것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다. 마태복음 1장 21, 22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 “...그 기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사기꾼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후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과 천국복음 전도는 병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한 마디로 주님은 천국복음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배 시간 엄수 및 각 부서에서의 먹는 문제에 대하여

1.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온 교회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생활하겠다는 전 교회적인 합의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강조하며 교육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권고하오니 잘 살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예배실에 착석하여 준비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종직자들이 아직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 2) 특히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부서, 모든 모임은 반드시 오후 4시 40분까지 마쳐 주시고 15분 전까지는 예배실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교회가 먹는 예상을 줄여서 단기선교를 나갈 수 있는 재정을 확보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고, 많은 교회에서 이를 부러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먹는 예상을 줄인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의도만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일에는 온 교회가 먹고 마시는 일로 흥청대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이는 일들을 보는 교회에 왜 나왔는가 를 의식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분규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오히려 우리가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와서 서로 단행하고 고요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권고하오니 잘 살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국수 외에는 각 부서, 각 모임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먹는 일을 금합니다. (단만 개인의 특수 사정으로 음식을 가져올 경우 교회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 시 간단한 차(茶)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2004년도 전반기 결산 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이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려고 인간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사탄은 우리와 같이 할과 육을 입고 있지 않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가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사탄은 그 힘을 잃은 것이고 또 결박을 당한 것이다(마 12:29).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가” 있는 방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눅 10:9)고 일러주셨다. 70인의 전도대가 주님의 사자로써 찾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이다. “참실 인이 7개뿐 되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17). 그러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까지도 저들에게 항복하였기 때문이다.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물로서 반개같이 멀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18절). 이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그 절정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귀신은 점점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물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 정복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미 사탄의 영역, 곧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 대한 이 같은 첫 번째 정복으로 인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는 동시에 이미 현존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진과 다름이 없고 사탄의 세력도 여전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영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천국복음인 것이다.

Why Jesus Used Parables

(30)And He said, "How shall we picture the kingdom of God, or by what parable shall we present it? (31)"[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when sown upon the soil, though it is smaller than all the seeds that are upon the soil, (32)yet when it is sown, grows up and becomes larger than all the garden plants and forms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NEST UNDER ITS SHADE." (33)And with many such parables He was speaking the word to them as they were able to hear it; (34)and He did not speak to them without a parable; but He was explaining everything privately to His own disciples. (Mark 4:30-34)

A parable is a simple, short story in which a spiritual truth is illustrated by an analogy drawn from everyday experiences. They can enlighten children and confound adults. Jesus liked to use them to make the secrets of God's Kingdom more engaging and clear to those who were willing to hear, and at the same time, more obscure to those who lacked spiritual awareness. The humble, soft hearted understood their meaning, while the proud, hard of heart could not. Jesus' parables allowed those rightly related to Him to understand heavenly secrets, and kept others unaware.

Everything Jesus said during His three and a half years of ministry was, and of course still is, and will always be very important. God gave Him a message to deliver, just as He gave the prophets of old, and just like the hardening of people in Old Testament times, so Jesus found many insensitive people who could not hear God's Word(see Is. 6:9-10).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His parables because their hearts were not spiritually responsive to God's Word. Paul encountered the same problem. He tried to explain the secrets of God's kingdom to the Jewish people, but only the Gentiles would listen. Even today preachers and believers attempt to share the good news, but the people only want earthly blessings.

After Jesus spoke to the crowds in parables, His disciples asked Him why. He explained to them about the gift of God(see. Mk. 4:11). He told them that God's gift is available to everyone. A sick, blind, or starving person can receive it, even a child. Whoever wants it will get it. It truly is that simple. Whoever opens their heart will receive God's gift. The humble listen, and hear God's voice. Whereas the proud, who listen with their own knowledge and authority can never understand. There is such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secrets of God's kingdom and the secrets of this earth. God's secrets cannot be bought or gained through experience. They don't come through education or sanctification. No one can give them to you. The Pharisees, scribes, and high priests studied and analyzed Jesus' teachings. After their careful review, they determined that Jesus was the son of the devil. They came to this conclusion because their hearts were hard. They were hypocrites. They condemned the Son of God for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The secrets of God are easy to understand. If you are humble

and truly seeking to hear God's Word, it will directly come down to you. The woman at the well, the woman with seven demons, the crazy man by the tombs, and the little tax collector in the tree all found God's secret. Even the centurion who nailed Jesus to the cross discover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secrets of God's kingdom will pour into your heart if your heart is ready. If it's like a rock, the seed will die. If it has thorns in it, like the worries of the world, religious pride, and selfishness, the Word will not grow. Listen carefully; the earthly things in your heart grieve the Holy Spirit. Be humble; deny yourself, and God's Word will take hold!

Jesus' parables talked about life, death, and resurrection. They spoke about the eternal future. He showed us God's personal involvement in human history, like a traffic light that glows red, yellow, or green when you drive. His words came from human language, but His message came from heaven. He shared little stories that had big power. Those who listened experienced the big power of God's Word entering into your heart and changing darkness into light.

The mysteries of God are revealed to those who can hear. Paul received the gift of God and explained the mystery of Christ (see Eph. 3:4-9). Jesus explained God's secrets through simple stories, using everyday language. Most of the people thought His teachings were too simple, and thus did not respect what He had to say. But those who really listened found God's secrets. They received heavenly directions. They found Jesus Christ. The Old Testament prophets predicted both the suffering and glory of the Messiah, without distinguishing that the former would be fulfilled at His first coming and the latter at His second (see 1 Pet. 1:10-12). Angels long to look into the Holy Spirit's workings. Human effort cannot find God's secrets. The Holy Spirit helps the humble, so Jesus used parables to talk to the humble.

Jesus praye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 Yes, Father, for this way was well-pleasing in Your sight" (Mt. 11:25-26). Listen to the words of Jesus with an open heart. His parables are not sophisticated puzzles designed for the highly educated. Quite the contrary, His parables are for children who want to grow and learn in God's wonderful grace. 🌱

다음 주일 설교

예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⁴⁰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³¹ 저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³²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³³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³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게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막 4:30-34)



김성완 목사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는 일상적인 체험으로 배운 것들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짧고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린아이들을 쉽게 가르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까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 확실하고 매력 있게 가르쳐주시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알아들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비유의 내용을 전혀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삼년 반의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은 과거에도 매우 중요했고, 물론 지금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 6:9-10 참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방인들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과 신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 결단물, 겸손한 자들에게는 징검다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 하셨습니다(막 4:11 참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 눈 먼 사람, 또는 굶주린 사람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이 세상의 비밀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돈을 주고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조사한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이야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겸손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물거는 여인, 임금 귀신 들렸던 여인, 무덤가에 살던 저러사 광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사개오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준비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있다면, 말씀의 씨앗은 말라죽고 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 근심이나 신양적 교만이나 이기심 같은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차차하고 있는 이 세상일들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쉽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

예수님의 비유는 생명과 사망과 부활에 관해서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미래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빛이 들어오는 교통 신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간섭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인간의 언어였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짧고 간단했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엡 3:4-9 참고). 예수님은 시장의 언어를 가지고 짧은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하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은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모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이 초림 시에 완성되며 메시아의 영광이 제2차에 완성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마태 11:10-12 참고). 하늘의 천사들도 성령의 일하심을 자세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이처럼 들으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1:25-26).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풀 수 있는 복잡한 수식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라고 배우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

장로 칼럼

네 선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자리이다

안동현 (장로, 총회인내부총장)

오늘도 아침부터 후텁지근하다.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었다. 낮은 벌레 30도를 웃도는 날씨다. 반면 겨울에는 영하 10~20도까지 내려가는데 칼바람이 부는 교회 뜰에서 있노라면 귀가 얼고 발이 어는 느낌이다. 이런 어려움은 차량안내부에서 봉사하면서 처음 경험한다. 덕분에 겨울 내복을 장만해 무장하고 나오니 한결 주위를 이길 수 있었다. 정말 이 부사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같이 가장 낮아지는 봉사자의 전형적인 부사임을 자부하며 오늘 하루도 봉사하리라 마음먹는다. 또 매주일 봉사를 시작하기 전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봉사와 인내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니 참 좋다. 70여 명의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봉사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부원들은 택시 영업을 하는 여러분들과 회사 사장, 건축설계사, 은행 차장 등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지만 십자가로 하나 되어 서로 위해주며 우애하니 감사할 뿐이다.

별개 교회 마당은 땀벌로 가만히 서 있гийн 하어도 등에서 땀이 흐른다. 지하주차장은 내뿜는 매연으로 숨이 쉼 막힌다. 주일에 찬양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와이셔츠를 벗으면 목욕재가 까맣다. 콧속도 매연으로 까맣다. 그런가 하면 매로는 안내에 따르지 않는 막부내인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도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이렇듯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잘 참고 봉사하신다. 나는 매대로 부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비록 봉사하는 자리가 힘들고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더라도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적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은혜로운 봉사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몸 뚫어 출현의 성전으로 찾아와 처음 마주치는 사람들이 우리 차량안내부 집사님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워지곤 하다. 항상 웃는 얼굴과 정중한 인사로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당부한다. 만약 작은 말이라도 있어 그 성도가 불을 품고 예배에 참석하면 집중할수 은혜를 못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귀중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성도님들 위주로 봉사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는 한다. 이 기회에 출현의 성도들께도 부탁한다. 차량안내부 집사님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이다. 먼저 빠져나가겠다고 입구를 막고 많은 차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성도, 통로를 막아놓고 나오는 바람에 수많은 차들을 잠시간 기다리게 하는 성도, 그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매연으로 가득하게 되는 등등 많은 안도려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출현의 성도들은 무언가 달라야하지 않을까?

"내가 신한 마음을 두 싸우고 나의 달라질 길을 따르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정말 힘든 한라산 하더라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사나 마음이 기쁘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비하면 1/100 아니 1/10000의 고통도 아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주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차량안내부 집사님들께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기도와 불신앙으로 멀어지는 김성관 위임목사님, 잘 따라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도 자신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고 겸손히 봉사하며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다.

지난 수요일에 매시지

개회사의 7월결 (양하 5:20-27)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도 함께 믿는다. 이 세상이 귀하게 보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도 하나님의 축사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 부름받는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다. 성경에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엘리아의 사한 개회사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엘리아는 훌륭한 선지자였다 - 열왕기하 4장 이하를 읽어보면 엘리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수번 여인은 엘리아의 예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왕하 4:17). 그러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는 엘리아가 직접 방문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기를 다시 살려내었다(왕하 4:35, 37). 순치생도들을 위하여 풀인 국에 먹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을 때에는 엘리아가 가루를 떼어 순치생에게 독을 없애는 기적도 있었다(왕하 4:41). 한 번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모든 선지 생도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음식을 남기는 기적도 있었다(왕하 4:43). 또 엘리아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으로 보내어 거기서 일곱 번 몸을 잠그게 함으로써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였다. 만약 이런 엘리아가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아를 추종했을 것이고 큰 세력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아의 신앙은 전혀 달랐다. 그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아만이 그사리 표지로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아는 한사코 거절하였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만으로 강권하지 되거 고사한지라"(왕하 5:15, 16). 참으로 놀랍다. 엘리아는 세상의 명예, 권세, 인정, 존경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엘리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개회사 - 이러한 엘리아를 답답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곧 엘리아의 사한 개회사이다. 나아만 장군처럼 권세가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과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더구나 앞으로는 훌륭한 선지가 될 터인데 왜 엘리아 선생님은 나아만 장군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일까? 개회사는 도무지 엘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주 오랫동안 엘리아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니 이제는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만도 한데 아직도 그는 인간의 욕심에 가득 차 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개회사가 내린 안타까운 결정을 보라.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좇아가지 못하였도니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왕하 5:20). 얼마나 안타까운 결정인가?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바라함의 신앙을 지켜본 듯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소음을 배하고 말았다(창 13:10).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참하여 바울의 신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바울

을 버렸다(딤후 4:10).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도 좋고 복음도 좋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않은가? 여전히 쾌락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않은가?

나아만이 엘리아에게 거짓말을 한다 - 개회사의 마음은 탐욕 때문에 마비되었다. 개회사는 나아만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고는 오 두 달만이나 오 두 벌을 받아낸다(왕하 5:22). 그러면서도 마음에 일할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자면 개회사는 나아만에 비하여 경험도 지식도 한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신앙을 처음 갖게 된 나아만에게 잘못을 보여주고 있다. 개회사는 자기 주인 엘리아에게도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왕하 5:25).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거짓말이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안위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배'와 '하마'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한다(고후 1:18, 20). 거짓말이나 핑계로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 혹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엘리아의 눈은 절대 속일수 없고 십자가에 걸린 것은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두리갈실하지 않다. 이런 핑계, 이런 거짓말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하다. 명확하다. 확실한 길이다. 이 길로 걷는 우리하기를 원한다(고후 2:15-17 참조).

개회사의 개신은 여지없이 깨어진다 -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만대임이 되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찢고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딤후 6:10-12). 개회사를 보라. 엘리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자가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행하고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왕하 5:23). 그 결정이 개회사를 찢는 것이다.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는가? 개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바리만 행복 대신에 비참한 대가를 만나게 되었다. "...개회사가 그 안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왕하 5:27).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좇아가려는가? 우리 중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혜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진부를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분의 도구가 되도록 하자. 우리의 모든 진리를 찾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일인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애쓰도록 하자. 말하고도 말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을 조금도 내어주지 말자.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바치자.

선교지에서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기 전 내 마음에 근심이나 있었.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으로 내 마음의 성소에서 성장해 아 할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너무 희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사 내가 만난 영혼들에게 전할 말씀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셨다. 복음을 들은 그들은 눈빛과 표정이 변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선교 중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 감사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것으로 나타났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1-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마음에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은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본 마음이 드러났다. 그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열었노라"(고전 2:3). 나는 이런 선교를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고자 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선교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적, 도덕적, 종교적인 자기 의의 옷을 덧입고 있었는지 알게 하셨다. 나는 연약하고 굶주린 나의 본질을 치유하고 참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쁘하고 잠시 잠깐 덮는 내 의의 옷을 마치 진짜 나인양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말과 내 진로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였노라"(고전 2:4-5).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외란 불도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 위에 얼마나 많이 내 지식과 지혜의 말을 덧붙였는지 알았다. 참으로 회개하며 감사했다.

김호석(청년1부)

선교지에서 느낀 감동

하나님의 동역자

2년 전 G국 단기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올해도 별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선교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처음부터 철저히 깨졌다. 팀원 모집부터 사역지 선정, 사역기간 결정, 팀원론, 언어훈련, 1인1명전도 등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하나 준비되고 드디어 선교지로 향했다.

둘째 날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 청담을 나갔다. 통령표를 받는 작은 농촌마을에 들어서자 큰 한두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놀랐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총무라는 위치와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주일 아침 새벽경건회와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마을의 평강이 찾아왔다. 운전기사에게 아예 갔던 곳으로 가져고 했다. 달리는 차에서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통령표를 받던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하였다. 인도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다. 복음은 역시 능력이 있었다. 받는 자보다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더 큰 것이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때는 갈증도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성령의 행전은 계속되어 나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농촌에 임한 것이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팀워크는 더 견고해졌다. 아한 지체를 알아보며 쟁거주,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시간이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자들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단순한 삶이었으나 복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의 지시에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도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양한 한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의지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이재호(타택안집사, 7교구)

언어론전 중국어 강의 개강

일 자: 오늘부터 (매주) 일 장소: 제1교육관 405호 시간: 오후 3시~4시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7일(월)~6월 16일(수)	J	15교구 3지역	박복봉	6월 9일(수)~6월 18일(금)	G	2교구 1지역	박성대
6월 17일(토)~6월 18일(토)	Z	9교구 5지역	장재호	6월 9일(수)~6월 19일(토)	D	18교구 1지역	정부조
6월 18일(토)~6월 17일(토)	Y	12교구 7지역	지규성	6월 9일(수)~6월 19일(토)	D	2교구 4지역	이영환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21일(월)~6월 30일(수)	D	10교구 7지역	신화민	6월 23일(수)~7월 2일(금)	K	2교구 6지역	정준환
6월 23일(수)~7월 2일(금)	K	예배당 1	조종환	6월 23일(수)~7월 2일(금)	G	13교구 5지역	김은철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15일(토)~6월 23일(수)	K	4교구 5지역	박복봉	6월 15일(토)~6월 25일(금)	K	10교구 2지역	정준환
6월 15일(토)~6월 23일(수)	K	8교구 3지역	박성대				

*선교위원의 방침으로 언어학 국가검정 합격하지 않습니다.

단기선교 일기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날

사역 셋째 날 새벽 3시가 지나자 나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 곤히 잠든 자에게 불빛 때문에 깨어나지 않도록 화장실에 불을 켜고 의자를 들고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주일 예배를 위해, 특히 기도순서를 맡은 자로서 심령의 준비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드렸다. 또한 오늘 사역할 마을에 갔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드렸다. 나의 심령은 기도으로 충만했다. 아침 6시에 모여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아침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곧 출발해서 마르다만 주변 농촌마을로 들어갔다. 아주 조용하고, 자연과 사람과 짐승들이 순박하게 어울려서 사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우리 모두는 '어두운 영을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 후 각 4명씩으로 나누어서 마을로 흩어져 들어갔다. 맨 처음 남자 몇 명이 눈에 띄어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신기한 듯 잘 들어주었다. 마르다만 지역은 방광리대시와 인접해 한두마을에서는 빨간바가 더 쓰일 것이라는 인도하심을 따라 빨간바를 준비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 빨간바를 잘 알아들었다. 그 집을 시작으로 해서 온 마을 집집마다 돌며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한 대장장이가 불을 달구며 연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를 돕고 있던 젊은 부인은 의자를 내와 우리를 앉게 하는 예의를 보였다. 그녀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진지하게 한가히만하다가 마음으로 정경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흥건히 고이는 것을 보며 참으로 준비된 영혼이었음을 알았다. 외도도 무척 사랑스럽고 예뻐서, 마음이 옥도발이었던 비산별로하리라는 이름의 부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정기도가자 진실하게 믿어 왔다. 나와 한터이었던 장로님도 그 눈에 고인 눈물을 보시고, 함께 감동했고 은혜 충만함을 받았다. 남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곳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우리가 어찌 물러보았든 큰 회교 사원이 멀지 않아 회교도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박 없이 잘 정경했다. (종박)

우리는 8일 동안의 사역을 끝마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떠나야 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어 척박하고 어두운 D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들을 기우셔서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퍼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로서는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진실한 수밖에 없으며, 영적으로 더 깊이 그리고 더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린다.

김명희(매곡전사, 3교구)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배웠습니다

전날이 주강성경공부를 마치고



지난해 연말 선교를 다녀온 후로 난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귀한 일인 영혼구원의 문제를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성경공부를 하면서(매인 자넌 바울은 쉬지 않고 빌립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격려와 영혼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음) 참성명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을 파고 들어 중한 자살에 있는 시동생에게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리라 작정하고 면회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내가 면회하려고 들어가 시동생을 찾는 순간 그는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었다. 아! 그럴 수가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고 나는 그의 앞에서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기도만 할 뿐이었다. 그의 죽을 앞에서 좀더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의 나태함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리고 영혼구원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근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6-11).

올해는 가족 내일이 모두 선교를 가게되 준비하고 있다.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전하는 자의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신 주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담을 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도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골 2:16).

이숙영(집사, 중동1부 교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중 둘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공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나 건조하고 신앙생활도 그저 타성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렸던 축복한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 주듯이 이런 갈급한 심령을 적시 줄 무었

을 찾고 있던 차에 충현교회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복무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열처녀의 비유 중 둘불만 준비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아서 기름과 같은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한히 배부르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있던 차에 집사님을 통하여 충현교회의 성경공부를 알게 되었고 타교인이지만 과감하게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충현교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한 한 장 한 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는 갖가지 사건들을 보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은 지금까지 홀로 읽고 이해하는 성경말씀과 판이하게 다름을 알게 되었고 성경 각 구절구절 속에 감춰진 의미를 통한 구약과 신약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은 제 자신에게 믿음의 참된 본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सार 앞으로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 믿 개설되는 강좌마다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열 마당으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충실한 이해 하에 좀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그분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윤지훈(집사, 타고인)

악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걸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나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이제껏 지내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에 깨어진 그 순간...

나는 내가 지금껏 가졌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겉 깨닫고 나서 참 믿음이 지저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힘겹게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의지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를 붙드시고 조용히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내가 돌아오기만을 원절같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난 올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내가 교인라는 자리에 서서 봉사를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내가 결코 잘나구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도 작고 나약한 나를 교사로 세우셔서 중동2부 천주들을 통해서 많은 걸 가르쳐 하십니다. 내가 그 천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지쳐 쓰러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던 나를 주님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고 배운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분이시라면,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중동2부 천주들이 진정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께 영감 받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이지만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내게 베풀었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고 작은 죄인인 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잘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작고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정말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며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김선영(중동2부 교사)

..... 1인1명 전도

준비된 영혼

단기선교를 계획할 때부터 마음의 짐이 된 일이 있었다. 부끄럽지만 전도를 한번도 해보지 못해 1인 1명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힘들게 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일꾼 된 자로서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숫자를 채워 넣기 위해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도를 해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우선 가까운 내 생활 환경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왔다. 그 중에서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가 떠올랐다. 헬스클럽을 가는 날 늘 친절하고 선배 보이는 그에게 교회에 다니느냐고 일단 말을 걸어 볼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날부터 그가 없었다. 일단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에게 말을 시켜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직원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아주머니나 뻔했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정말 무안해 그 헬스클럽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의 예정하신 사람은 따로 있었다. 몇 주 뒤 헬스클럽에 다시 갔을 때 젊고 아름다운 여자 트레이너 한 사람이 보였다. '저렇게 젊고 발랄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교회에 안 갈 거야'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대 저구 그녀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보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원래 교회를 다녔고, 회교를 다시 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우 반갑고 감사했다. 그녀가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이었던 것이다.

나의 의지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이뤄졌던 제철은 G곡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바울은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과 같다고 고백하였다. 그 고백처럼 단순히 교회로 오는 것을 전하는 전도에서 벗어나 이미의 심정이 되어 한 영혼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되길 기도하게 되었다.

부경원(집사, 3교구)

교회합방 20관사회

복음의 길로 달려가는 기도의 어머니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는 관사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신 것일까? 관사회 소식을 알고 싶어서 관사회의 본회 임원단 여러분을 만나 보았다.

● 관사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원로 관사님, 은퇴관사님, 그리고 시무관사님들의 모임이 관사회이지요. 충현교회에는 전부에서 약6명의 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회와 별도로 교구별로 네 다섯 교구씩 묶어서 지회를 만들었지요. 현재는 1지회와 4지회까지 있습니다. 각 지회에는 지회장 및 임원단이 있고, 지회장을 포함하여 11명의 본회 임원단이 관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평영옥 관사, 4지회장)

"저의 임원들은 현재 3년 동안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복음 안에서 초점이 하나가 되니까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렇듯 기쁘고 좋습니다." (이경연 관사, 2지회장)

● 24시간 연속기도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교회가 어려울 때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14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지요. 작별자까지 해도 한 번에 두 시간씩, 한 달이면 두 번 정도 순번이 돌아왔는데, 보람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속기도회를 담당해 주시는 덕분에 관사회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중 18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순 관사, 3지회장)

"교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회와 각 부서의 마음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해지지요. 이번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연속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24시간 연속기도회가 전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경연 관사, 2지회장)

"어떤 타고의 관사님은 충현교회의 24시간 연속기도회에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충현교회에 등록하셨지요. 등록하신 후로는 연속기도회 시간 중 제일 어려운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그 시간을 자원으로 감당하셨지요. 앞으로도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옥 관사, 4지회장)



● 내일부터 열리는 2004년 관사수련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지회별로 관사님들이 얼마나 기본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지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기분 것이 당면하지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다보면 밤에 집에 갈 생각도 있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많지요." (한영옥 관사, 4지회장)

"이전에는 충현교회에서 1박2일로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관사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영어부실에서 편이 주무실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침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많은 관사님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영옥 관사)

● 단기선교에 관사님들도 열심히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관사와 역시 애매다 단기선교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전념할 뿐 아니라 많은 관사님들이 직접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사님들이 단기선교에 헌신하라고 봅니다." (황유남 관사, 회계)

● 신임 남서세리집사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절기 때문에 외옥도 패기도 넘지겠지만, 그럼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경말씀 외치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외치자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천국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자 관사, 서기)

"무엇보다도 소중을 잘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개성을 중요시한다지만 교회 안에서는 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지요." (오자관 관사, 지회)

"젊은 일꾼들이 각 교구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과 같은 연령층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마음으로 요교집회나 구역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분을 받아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앙장을 선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 마음을 합쳐 복음의 길로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조영순 관사, 부서기)

은이 관사님들 하면 일선에서 후퇴하여 기도에만 전념하는 분들로 알기 쉬우나, 충현교회 관사님들은 달랐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관사님들이 모두 6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 기도하고 발로 뛰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관사님들이었다. 앞으로도 복음의 길을 앞장서 뛰어가시는 관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미/정진심

다시주일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다음 주일 찬송 '주와 같이 갈 가는 것'은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습니다. 특히 1,2절과 3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2절 : 우리는 어린아이의 같이 불안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를 의지하여 주님 이 필요인 발자취를 매일 매일 걸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자.

3절 : 우리가 들리나니 현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면 담대하게 걸을 수 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찬송하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귀한 삶을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찬송을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자.

(찬양위원회)

함께 하는 이름

김영자 (집사, 4교구) 김영자 집사는 심적으로 약해져서 안면마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들어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집사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 족 을 한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86	이영희	1	청년부	류정희(3)	1412	이현숙	10	장년부	이민선(3)	1438	최하연	19	대학부	배찬희(5)
1387	조경희	1	청년부	최태희(17)	1413	김진숙	10	장년부	이민선(3)	1439	이혜배	19	대학부	최재민(7)
1388	전신아	2	중년부	박기태(2)	1414	이영희	10	청년부	안금주(2)	1440	김진영	19	대학부	박재민(7)
1389	안승선	2	장년부	안영자(2)	1415	임성현	10	장년부	황기국(2)	1441	김태희	19	대학부	차영숙(17)
1390	노경진	2	장년부	이규숙(7)	1416	김성희	10	청년부	조종영(2)	1442	박정민	19	대학부	정신재(17)
1391	김규희	3	장년부	김태희(1)	1417	유종수	11	장년부	김정민(10)	1443	전진성	19	대학부	김원수(2)
1392	홍기	19	외선부	김희철(1)	1418	차지	19	외선부	정영숙(2)	1444	문순희	19	대학부	이호원(17)
1393	라지나	19	외선부	박재민(10)	1419	명유	3	소망부	구옥자(2)	1445	이종민	19	대학부	배은영(17)
1394	김민진	3	중년부	조종영(2)	1420	윤성진	4	소망부	이연숙(2)	1446	고종민	19	대학부	박재민(7)
1395	김영숙	3	장년부	조종영(2)	1421	윤정진	4	장년부	이연숙(2)	1447	한기수	19	대학부	유현민(17)
1396	이현숙	4	청년부	장정민(4)	1422	김진숙	4	장년부	이연숙(13)	1448	정영민	19	대학부	전귀환(2)
1397	유경	4	청년부	김희철(1)	1423	김성희	4	청년부	오영희(2)	1449	김정민	19	대학부	박정민(7)
1398	박혜선	4	청년부	조종영(2)	1424	김진숙	4	청년부	이연숙(2)	1450	이정희	19	대학부	박은선(19)
1399	황지연	6	청년부	권숙희(2)	1425	나영애	5	청년부	김영숙(2)	1451	유혜영	19	청년부	전은미(2)
1400	김일주	7	청년부	조종영(2)	1426	남일주	5	청년부	구옥자(2)	1452	김예수(2)	19	청년부	정민(2)
1401	김영주	7	청년부	민영자(9)	1427	최소진	5	청년부	김영숙(2)	1453	양한은	19	청년부	박은영(17)
1402	이영희	7	청년부	조종영(2)	1428	이현숙	16	청년부	김희철(1)	1454	김정희	19	청년부	최은영(17)
1403	이영희	7	청년부	조종영(2)	1429	송영희	17	청년부	민영자(9)	1455	임정민	19	청년부	김영숙(2)
1404	김태희	8	청년부	박희철(10)	1430	구진하	18	청년부	박희철(10)	1456	서진숙	19	청년부	김일주(2)
1405	문수정	8	청년부	최영애(2)	1431	배숙희	18	청년부	박희철(10)	1457	김수현	19	청년부	김정희(1)
1406	김영자	8	청년부	정영애(17)	1432	이민진	19	고등부	양산자(2)	1458	최영희	19	청년부	박정민(7)
1407	유정민	8	청년부	김기현(2)	1433	조종영	19	대학부	김정민(10)	1459	송정희	19	청년부	서준성(1)
1408	박재민	8	소망부	박희철(11)	1434	한영민	19	대학부	이연숙(14)	1460	유정민	19	청년부	송영숙(17)
1409	이영희	9	청년부	황기국(2)	1435	김진희	19	대학부	김정민(10)	1461	이현숙	19	청년부	정민(2)
1410	박영숙	9	청년부	박정희(2)	1436	공희희	19	대학부	김영숙(2)	1462	김현희	19	청년부	김은영(2)
1411	신영자	9	청년부	박정희(2)	1437	정지현	19	대학부	유현민(17)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수현회
일시: 21~22일(양일) 10:00
장소: 강림리교회
2. 김사희의 불행회
일시: 22일(목) 권사수현회 후
장소: 강림리교회
3. 소망부 아모수수회
일시: 7월 1~2일(양일) 10:30~14:30
장소: 강림리교회
4. 오스미스불행회 불행회
일시: 25일(금) 18:00~19:30
장소: 오스미스(제2교관부)
5. 남산전도부 불행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전도부회의 회의실
대상: 남녀 전도부 연합가족
6. 군인전도의 불행회
일시: 25일(금) 18:00
(하사, 만사들 17:00)
장소: 배다나홀

별세

1.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60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4.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5.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6.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1. 김철의 사도, 18교구 신봉구역/ 15
일 16일, 17일 12월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결혼

1. 김철의 사도, 18교구 신봉구역/ 15
일 16일, 17일 12월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주 소 신

1. 김철의 사도, 18교구 신봉구역/ 15
일 16일, 17일 12월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 2004 여름계절학교 교사양성회 오늘 일정

- 대상: 제1·2교구위원회 교사 및 희망자 시간: 12:30~13:40
강의: ◇ 청소년 여름교과 학습(중등부~고등부/교육관 401호) ◇ 여름학교 지도방법(유년부~소년부/교육관 301호)
◇ 유아교육 프로그램(영아부~유아부/교육관 201호)

◆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개강사

전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회개강사를 실시한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강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강사기간: 7월 첫 주~6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4년 1월~6월
3. 강사장소: 전도위원회(제2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사진2부(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 2004년도 하반기 장로양성 신청안내

1. 선별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 교회학교에 재적자인 교·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교내외에 교회학교 부설교회에 잘 참석하여 교과 부서에 한신자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4년 6월 27일부터 2004년 7월 11일까지
3. 신청장소: 교육관

4. 문의: 교육관 ☎ 552-8200 / 472, 473

2004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교인 (입원전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자?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자? (정진호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6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지역 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림리교회)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이번 주 새끼기도회 담당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환/김영은	김용덕/이병영	고광환/최희창	김익환/이지은	장 훈/김연근	임현덕/김정희

예배담당 안내 (6/23-6/27)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6/23 수요일	주요1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장 훈 장부회 안치원	이스라엘의 신앙(시 78:40-42) 장성관 목사
6/23 수요일	주요2	소르바에 김해선(중등3부) 피아노 트리오(중등3부) 장광환(신임목사)부	유병희 유병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1:18-25) 장종신 목사
6/25 금요일	주요3	소르바에 김해선(중등3부) 피아노 트리오(중등3부) 장광환(신임목사)부	유병희 유병희	장성관 목사
6/27 주일 I	주요4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이창수 고광환	예수께서 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막 4:30-34) 하종철 목사
6/27 주일 II	주요5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이창수 고광환	예수께서 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막 4:30-34) 하종철 목사
6/27 주일 III	주요6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이창수 고광환	예수께서 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막 4:30-34) 하종철 목사
6/27 주일 IV	주요7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이창수 고광환	예수께서 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막 4:30-34) 하종철 목사
6/27 주일 V	주요8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이창수 고광환	예수께서 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막 4:30-34) 하종철 목사
6/27 주일 VI	주요9	예수 사랑하심은 위가브라함 왕장단(하드 주수)	이창수 고광환	예수께서 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막 4:30-34) 하종철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동성교회)동성교회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끼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최요집회	오후 11:00	최요집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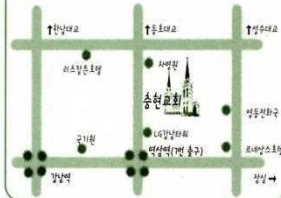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청, 12: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및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vening 4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6월 충현 기도회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우림을 사용하시며, 말씀에 증거하시며 때마침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예배 때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단기성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팀이 되게 하시며, CMIT와 언어훈련 및 팀장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4. 충현교회의 단기성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피aeda 교육을 통해서 모든 피aeda자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깨닫기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6. 여름계절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현교회를 하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이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인권이 되게 하소서.

교회 외의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1. 김철의 사도, 18교구 신봉구역/ 15
일 16일, 17일 12월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4.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5.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6.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7.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8.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9.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10.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 부목사

1. 김철의 사도, 18교구 신봉구역/ 15
일 16일, 17일 12월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4.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5.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6.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7.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8.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9.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10.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1. 김철의 사도, 18교구 신봉구역/ 15
일 16일, 17일 12월
2.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3.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4.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5.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6.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7.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8.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9.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
10. 이명숙 성도 이연선 집사의 모친, 하복
구 상전2구역/ 10월 16일, 12월 12일